

# 韓國의 甲冑(2)

## —皮甲을 中心으로—

李 康 七

### 머릿말

예로부터 兵士란 一 千日을 쓰지 않아도 좋지만 하루라도 訓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들의 옛 先人들은 平時에도 用兵制度와 兵仗器의 손질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따라서 隨時로 監察을 通檢 點檢 視察을 實施하였던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갑옷은 武士의 護身裝備로서 例外는 아니었으니 이는 革製를 비롯하여 紙, 銅, 鍮, 鐵製로서 蠹蝕을 비롯한 銅綠과 腐蝕으로 因하여 有事時에 對備 再整備가 要求되었던 까닭이었던 것이다.

갑옷이 처음에는 單純한 護身의 目的에만이 着用되기 까닭에 鎧 등의 가죽으로만 만들어졌고, ① 後 漸次 用途의 範圍가 擴大됨에 따라 그 資料도 넓이 活用하게 된 것이다. 즉 儀式用이라는가 戰鬪用 그리고 訓練用에는 各己 用途에 適合한 物件이 要求되었으며, 그 製法上에 있어서도 梁書에 依하면 中國에서 傳해온 것으로 記錄되어 있으나, ② 中國兵器史稿에 따르면 唐太宗(626~649)은 百濟에 使臣을 보내 五色이 짙고 金色이 燦爛한 金漆塗鐵甲을 求하다 입었다는 記錄을 볼 수 있다. ③ 後 高麗以後에도 繼續해서 交流가 있었던 것이며 아울러 朝鮮王朝以後에도 持續되었던 것이다. 또한 默過할 수 없는 事實은 朝鮮太祖三年에는 暹羅斛(現泰國)의 張思道等이 來朝하여 갑옷과 구리그릇

을 進上한 ④ 事實과 頻繁히 邊境을 侵犯한 倭寇들로부터 鹵獲한 갑옷을 朝廷에 獻納한 事例는 史書를 通檢 知悉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 까닭으로 이 甲冑는 그 研氣範圍가 擴大되어야 할 것이나 本稿는 前稿에 ⑤ 이어 여러 種類의 甲冑中에서도 干先 皮革을 主原料로 한 甲冑로서 現在 傳存되는 遺物을 中心하여 다음과 같이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 一、傳存遺物의 實態

#### 가、國內部分

##### 1. 투구

全國적으로 갑옷을 所藏하고 있는 博物館은 國立中央博物館을 爲始하여 民俗博物館, 高麗大學校附屬博物館, 民俗村博物館, 釜山市立博物館 그리고 個人所藏品이 있기는 하나 모두 本稿에는 該當치 않아 다음에 擧論하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軍事博物館所藏品인 투구를 對象으로 하나 實은 이투구도 國立中央博物館所藏品인 것이다. 이는 金璫主將軍이 寄贈한 李鳳祥(1976~1728) 將軍의 元帥, 副元帥用의 로 흔히 말하 鉢形투구이다. 이는 위는 좁고 아래로 퍼진 模樣이나 頂蓋의 三枝槍 幹柱는 없고 다만 꽃이쇠 만이 남아 있다. 鉢은 四注로 감싸였고 內部는 가죽으로 二重處理하였다. 左右 귀가리개와 목가리개(鑑)는 淡黃色綿地 이고 그 위에는 黑色으로 雲唐草紋이 施文되었는데 모두 磨滅된 狀態이다. 裏地는 靑色綿地이고 心地는 白色무명이다. 鐵製는 모두 水鐵로 頂蓋와 四注 그리고 허리板鐵과 前庇等に 使用되었다.

##### 規格..鉢底面, 귀가리개等 다음 製法에서 詳述함.

1. 靑色有紋絹織皮甲  
여러 形態의 갑옷中에서 皮甲으로 거의 形態가 完全形에 가까운 것으로는 軍事博物館所藏品인 表地가 靑色有紋絹織인 皮甲과 赭黃色木綿皮甲이 있는바 이는 이미 밝힌바와같이 國立中央博物館所藏品이었던것을 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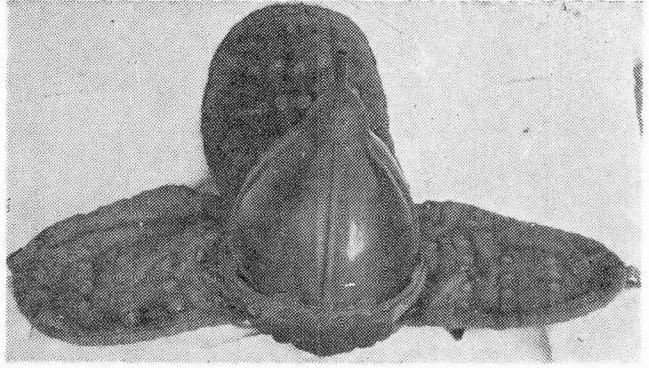


圖 1 투 구



圖 2 青色有紋絹織皮甲

事博物館에서 貸與한 것이다. 이 두벌의 甲冑中 青色有紋絹織은 오랜 年輪이 흐른 탓으로 비단 部分은 거의 磨滅되고 裏地와 心地만이 남아져 우皮札만을 維持시키는 형편이다. 다행이도 裏地는 青色木綿이고 心地는 白色木綿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保存된 듯하다. 모양은 길이가 무릎에 닿을 정도이고 소매는 팔꿈치에 미치지 하였는데 規格은 다음 製法에서 詳述하겠으나 大略 총길이 九十センチ, 소매길이 五十五センチ이다.

丙、赭黃色綿皮甲

同博物館에는 赭黃色綿皮甲이 있다. 이는 길이가 무릎에 닿을 정도이고 소매는 亦是 팔꿈치에 이르러 하였으며 比較的 綿地라서 코린지 그

狀態가 매우 좋다. 다만 흠이라던 下部에 若干 쥐가 쏘른 자리가 있고 左便 어깨에 肩織 몇 단 자리가 찢어져 있을 따름이다. 이 갑옷도 表地는 赭黃色絹織이고 裏地는 青色무명이며 心地는 白色무명을 대었는바 그 規格은 총길이 百六センチ 앞길 八十五センチ 소매길이 六十センチ이다.

己、赭黃色綿皮甲

赭黃色綿皮甲으로는 高麗大學校附屬博物館에 또한벌이 所藏되고 있는데 그 狀態는 매우 좋다. 地質에 있어서도 軍事博物館所藏 갑옷과 같이 表地는 赭黃色絹織이고 裏地는 青色무명이다. 規格도 軍事博物館所藏品과 같은 程度다.

나, 外國部分

우리나라 갑옷이 外國에 流出되어 있는 것으로는 現在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오스트리아에 한벌이 있고, 日本 靖國神社內에 있는 寶物遺品館에 몇벌이 所藏되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것은 형태가 달라 本稿에서는 例外로 하고 다만 日本 寶物遺品館에 있는 것을 大略 간추려 본다면 그 內容은 頭釘甲과 掩心甲 그리고 皮甲이 있는데 그 狀態는 매우 좋은 편이다. 이는 언제 어느 經路를 통해 그곳에 所藏되었는지가 仔細하지 않으나 그 遺物마다의 內容을 살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圖 3 赭黃色綿皮甲

1, 투 구 (1)

가죽에 黑色 漆를 했고, 正面과 左右 그리고 後面에 各各 銀象嵌을 한 筋鐵을 四注에 뒀다. 金銅으로 투구 頂上에는 唐草文을 銀象嵌한 鐵로 씌웠고 그 위에는 幹柱를 세워 紅毛와 葱頭, 三枝槍을 裝飾하였다.

허리에는 板鐵을 둘러었는데 四注 사이마다에는 如意頭文이 두개씩 配列되어 있다. 그리고 正面前底를 固定시키는 돌림쇠는 허리의 板鐵形 式으로 하고 正面 正中의 筋鐵을 連해 左右에 花文을 打彫하여 목가리개와 더불어 固定시켰다. 아울러 이마가리개는 眉間을 中央으로 하여 左右로 山形을 形成하여 前底와 더불어 固定하였다.

목가리개는 正面前底 끝을 左右에 連해 뒤로 둘러었는데 結간은 茶色地이고 裏地는 靑色地이다. 속의 甲札을 連綴하였는데 結에서 金銅頭釘으로 固定시키는 한편 그 周圍는 結간으로 돌림으로 處理하였고 左右가리개 끝에는 끈을 달아 턱 밑에서 매게 하였다.

2, 투 구 (2)

가죽에 黑色 漆을 하고 鐵製로 四注를 즉 正面과 左右 그리고 後面에 各各 固定裝飾하여 만들었다.

투구 頂上에는 鐵板을 둥글려 두경을 하고 幹柱꽃이 만이 있을 뿐이다. 허리 테는 둥그스름한 鐵板을 둘러었음만 무늬는 없고, 다만 前底가 正面에 있으나 一部가 損失된 狀態이다.

이마가리개는 너무 誇張시켜 中央眉間을 保護한다기 보다 코까지 가리울 程度이다.

목가리개 表地는 縹色綿地에 寶相華唐草를 보라색으로 무늬를 넣었고 裏地는 藍色地를 使用하였는데 안에는 甲札을 대고 表地에서 鐵製頭釘으로 固定하였다.

3, 갑 옷 (1)

결갑(表地)은 붉은 바탕에 如意頭文과 雲龍文이 交叉로 施文된 絹織이며 裏地는 藍色이다. 길이는 무릎위에 이르게 하고 소매는 팔꿈치에 미치며 가슴과 등에는 가죽을 長方形으로 잘라 紺靑색칠을 하고 이를

連結시켜 表面에서 黃頭釘으로 固定시킨 模樣이다.

목둘레와 앞솔기를 비롯하여 아래 단, 배래와 열구리는 모두 割開式이며, 어깨에는 金銅製 裝飾을 접었다 폈다 하게 하여 어깨에 自由로 움직이게 하였으며, 앞솔기 合衽處에는 金屬製圓形단추를 두개 달았다. 規格 길이 二尺三寸, 소매길이(등솔기에서 수구) 二尺⑤

리, 갑 옷 ②

겉감(表地)은 縹色綿이고 寶相華唐草文을 보라색으로 施文하였다.裏地는 藍色명주인데 皮札에는 黑色漆을 하고 衿과 連結 固定하였다.

목둘레는 흰가죽으로 둘러고 이어서 앞 도련과 소매부리를 連한 배래는 모두 트인 활개식이고 앞솔기 合衽處에는 銅製圓形단추를 달아 입고 벗는데 便利하게 하였다. 規格은 길이 三尺四寸, 소매길이 一尺八寸.

다, 紋樣

現在 軍事博物館所藏遺物中 前記한바와 같이 絹織이 磨滅된 狀態이기 때문에 그 紋樣의 痕跡이 없어 밝히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는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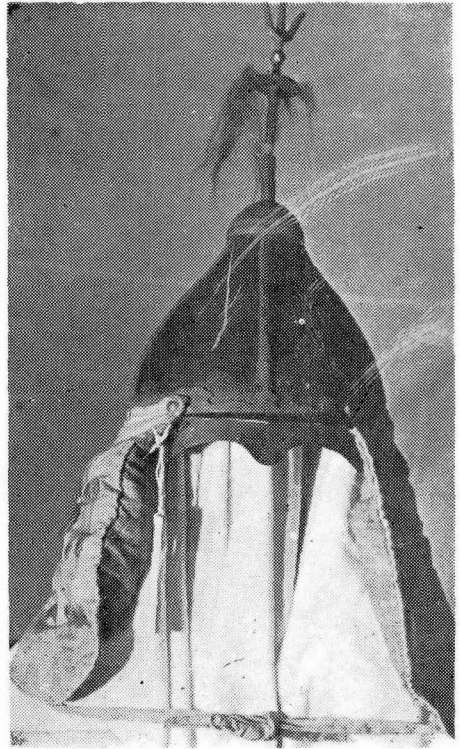


圖 4 투구 I



圖 5 투구 II

이며 또한 赭黃色皮甲의 무늬는 前面 가슴 左右와 腹部 그리고 下部 左右에 各各施文되고 따라서 後面에도 背部와 下部 左右에 各各施文되었는데 이는 連結된 草花文을 外廓으로 둘러우고 內部에는 各各 다른 文字를 紋樣化하여 紺靑색으로 捺印한 狀態이다. 또한 日本 寶物遺品館에 所藏된 갑옷(1)에는 雲龍紋과 靈芝雲紋이 交代로 施文되었고, 갑옷(2)에는 寶相華紋이 매우 鮮明하게 施文된것을 볼수 있는 바이다. 이미 龍文에 對해서는 前號에 拙文을 通해 略述한바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略하며 다만 如意靈芝雲과 寶相華紋에 對해서 만이 簡單히 그 뜻을 살펴 略述하고, 따라서 갑옷의 裏地에 주로 靑色地를 널리 使用한것은 우리나라는 東方에 位置한 까닭으로 靑色을 崇尚한 까닭이었던 것이다. ⑥

7, 如意靈芝雲紋

如意란 僧具로 하는 外에 文官이 奏上할 때 啓事의 要文을 개우치기 爲 使用하는 笏과 더불어 쓰고, 따라서 指揮와 護身用具로 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또 道敎가 隆盛함에 따라 祥雲을 形象한 머리로 또 는 吉祥이 있다고 하여 頌祝의 물건이라고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



圖 6 잡옷 I



圖 7 잡옷 II

전靈芝는福버섯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說文에는「靈芝神草也」라 했으며, 「草本」에도 瑞草라 해서『服之神仙』이라고도 했다. ⑦ 또 幸福의 버섯, 萬年의 버섯, 그리고 흔히 芝草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神靈의 芝草라는 뜻에서 靈芝라고 불리운 것이라 한다. ⑧ 이러한 뜻이 담겨있는 이如意型靈芝雲은 넓이 무늬화 되어 家具를 비롯한 什器, 그리고 衣服의 무늬로 넓이 活用되었던 것인데 특히 잡옷의 表地の 무늬로 雲龍과 같이 사용된 것은 어명한 特徵의인 文樣에서보다 當時 넓이 活用된 까닭에서 軍指揮官의 衣服 무늬로 사용된 듯 하다.

寶相華紋  
寶相華의 原名는 曼荼羅華로서 適意, 成意, 雜色等으로 翻譯되며, 또

한 佛花, 顯茄, 閻陀羅草, 天茄彌陀花라고도 하는데 이는 唐草무늬를 主題로한 假想的 五瓣花이다. ⑨  
이는 佛敎가 傳來된 以來 乾陀羅美術을 비롯한 佛敎文化가 끝일 사이 없이 傳播되어 佛家는 勿論 王家나 士大夫의 貴族社會를 비롯하여 一般 庶民에게까지 넓이 普及되어 來世의 永生極樂을 希求하는 發願과 現世의 富貴多福의 希求心에서 金屬工藝, 木工藝 또는 衣裳의 織物等에 이르러까지 넓이 愛用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 紋樣의 單位文으로는 自然發生의 瑞雲을 비롯하여 動, 植物等과 넓이 應用되었던 것을 傳存되는 遺物을 통해 觀察할 수 있는바이다. ⑩

## 二、傳存皮甲의 製法

甲冑는 머리를 保護하는 투구와 頸部로부터 등과 가슴을 掩護하는 갑옷으로 區分할 수 있는 바 이는 모두 가죽이나 구리(銅) 그리고 놋쇠, 무쇠 조각 등으로 만드는 것이 普通이며, 따라서 투구와 갑옷이 한데 붙은 것과 따로 떨어진 것으로 分離할 수 있다. 또한三甲이라 하여 肩甲、胸甲、腿甲으로 分類한 적도 있고, 革製 戎衣라 해서 胸鎧、腹鎧、拔膊等이 있으며 때에는 凶惡한 形態의 鎧의 짐승의 무늬를 느끼로 하였다. 이러한 갑옷이 이제까지 傳存되는 遺物의 實態로는 高句麗古墳壁畫를 비롯하여 慶



圖 8 如意雲文



圖 9 寶相華唐草文

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現在 實物로 傳存되는 遺物로는 이미 拙稿로 밝힌 바 있거니와 鐵製로 된 鄒地將軍의 갑옷을 비롯하여 西厓와 李鳳祥將軍의 元帥甲冑等이 있으며 皮甲으로는 모두 투구와 갑옷이 따로 떨어진 模樣이다. 皮甲에는 주로 牛皮 또는 豬皮가 主原料로 使用된 것이나 中國 周代考工記에 依하면 물소가죽(犀皮)이나, 코뿔소가죽(兕皮)도 使用하였다. 이는 가죽 뒤에 붙은 살은 모두 도려내고 길가죽만이 使用하는바 犀甲은 七屬이요 兕甲은 六屬이며 牛甲은 五屬인데 그의 壽命은 犀甲이 百年이요 兕甲은 二百年이며 牛甲은 三百年이나 使用할 수 있다 한다. 그리고 唐 六典武庫令에 依하면 甲冑의 種類로는 十三餘種으로 明光甲、光要甲、

州地方에서出土된 蠟石十二支武人像等이 있고, 또한 慶州掛陵을 비롯한 高麗朝鮮王朝의 歷代王陵의 세워진 石彫武像을 들 수가 있을 것이나 이는 모두 儀式用 護石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태어 밝힌다면 各寺刹에 그려진 四天王像이 있고, 巫俗其他 民間信仰에서 쓰이고 있는 여러가지 資料가 있기는 하나 結論같이 뚜렷하게 내세울 資料의 價値로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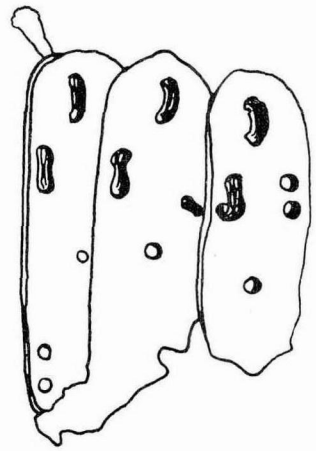


圖 10 皮製小札(唐宋代)



귀가리개는 下部돌림쇠에 連結하였는데 袷은 淡黃色 무명이며 무늬는 黑色으로 雲唐草를 施文하였으나 모두 磨滅된 狀態이고, 안감은 靑色 무명이며 心地는 백색 무명이다. 그리고 그 内部에 쇠미늘을 대었는데 그 規格이 고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바 길이가 8 센치 또는 7·5 센치 5·5 센치 등이며 너비도 6 센치 5·5 센치, 4·5 센치, 4 센치 등으로 連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끈은 투구를 머리에 固定시키는 안끈 즉 귀가리개 連結部分 左右에 있을 것이나 남아 있지 않고 다만 귀가리개 끝部分만이 同一地質로 한 쪽은 고리쇠(左側) 右側은 끈으로 침부하였다.

나, 갑 옷 (1)

袷은 有紋絹織이었으나 磨滅이 甚하여 紋樣의 形態를 알아볼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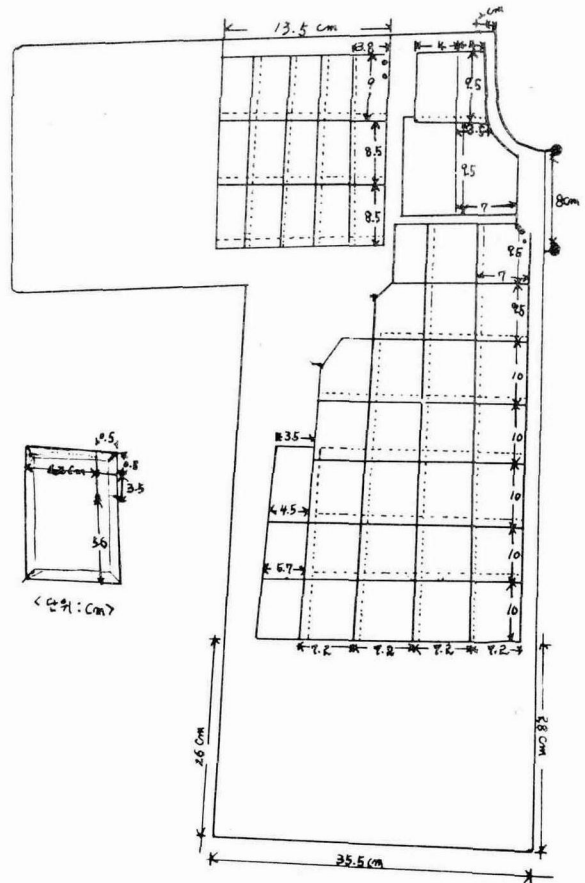


圖 12 左衽皮札排列圖

고 안감은 靑色 명주이다. 총 길이는 百六 센치에 이르고 소매는 등솔기에 서 소매부리까지 五十五 센치로 팔꿈치에 미치게 되었다. 목둘레는 파진 모양에다 흰가죽으로 마러싸고 단추는 놋쇠를 圓形으로 세개를 목둘레合衽處에서 아래로 내리 세개를 달았다. 길은 보기에 옷 위에는 옷 위에 놋쇠 못머리 만이 整然하게 박힌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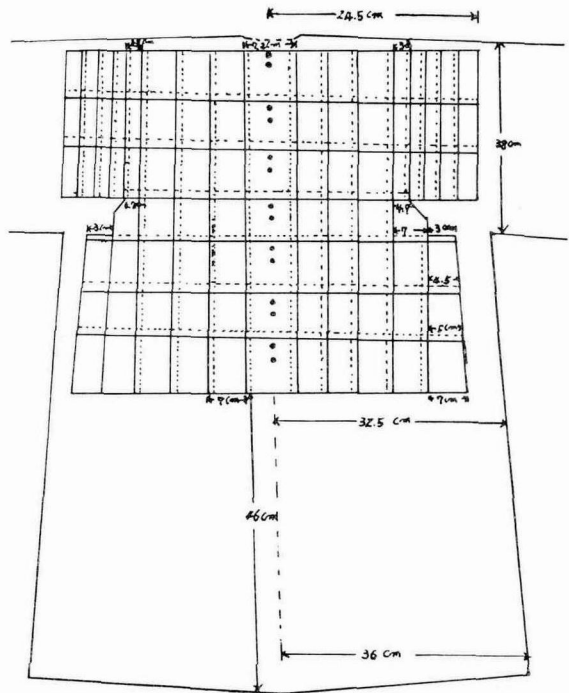


圖 13 後面皮札排列圖

뒤집어 가죽 片札의 連結된 것을 살펴보면 먼저 袷과 안감 그리고 袷을 한 데 連結시켜 옷을 만들고 그 위에 皮札을 連續하였다. 皮札의 構成은 세 겹으로 하였는데 모두 接着하였고, 表面 즉 겹으로 露出되는 部分은 周圍를 모를 재어 보기에 한 겹 부드럽다. 皮札의 規格은 位置에 따라 形態와 規格의 差가 있는 것으로 제일 큰 것이 길이 10 센치에서 9·5 센치이고 너비는 7·2 센치에서 3·5 센치 정도로 좁은 것이 있다.

皮札의 配列은 앞솔거를 起點으로 팔팔겨드랑으로 미늘이 풀리게 되었는데 목둘레에서 2·5센치의 사이를 維持하고 앞솔거에 이르면 2센치로 그 間隔이 좁아진다. 이 皮札은 목둘레와 어깨 部分의 것이 가장 좁고, 목과 어깨 部分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漸次 그 規格이 커지면서 九段 五列로 그 숫자도 增加하여진다. 皮札의 連綴方法은 左側 앞자락의 境遇 皮札右側上端에 위에서 0·5센치 0·5센치 6·5센치 順이고 右間隔도 0·5센치 0·5센치의 사이를 두고 黃頭釘(머리를 둥글린 직경 1·8센치)으로 表面에서 안으로 못을 박되 먼저 가죽으로 못머리정도 재단하여 끼우고 竝인 다음 철제 멈춤쇠를 皮札위에 대고 못뿌리를 공굴리어 곱게 다듬었다. 이러한 製法은 右側 앞자락은 左側 앞자락의 反對順으로 製作하며, 뒤판은 脊椎中央을 起點으로 하여 左右로 풀리게 連綴하는 方式으로 하였다. 그리고 어깨에는 7·5센치와 8센치 크기로 하고 中央을 境越 모양으로 움푹하게 하였는바 이는 어깨를 움직이기에 自由로움을 주기 위한 方案이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길이 16·5센치 머리부분 너비 13센치 아래부분 너비 10센치 크기의 白色가죽을 대어 다른 部分보다 튼튼하게 하였다.

다, 갑옷(2)

겉감은 綿織赭黃色이고 안감은 靑色명주이며 속감은 白色무명이다. 종길이는 106센치에 소매는 팔꿈치에 이르게 되었으며 배대와 옆을 모두 터 활개식이다. 亦是 이 갑옷도 겉감과 속감 그리고 안감을 마련하여 완전히 풀린뒤 皮札을 連綴하였다.

이 갑옷의 右衽은 갑옷(1)의 製法과는 달리 合衽處 솔거에 皮札을 한 겹 더 낸 것이 특징이다. 즉 右衽과 左衽이 連結되는 곳에 各各 皮札이 半分式 접치게 하므로서 갑옷(1)의 合衽處 空間을 메꾸었다. 이는 그러니까 胸部를 더욱 安全하게 保護하는 方案인 것으로 上端 즉 목部分에서 부터 아래로 네리 四片을 連綴하므로써 胸部全體를 빈틈없이 갑자 掩心甲의 役割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皮札의 構成은 목과어

개로 三片씩이고 이어 팔을 連하는 곳에 左右各 七片씩인 同時에 左右 衽 모두 八段階로 連綴하였다. 背面의 製法은 前記 갑옷(1)과 그 手法이 같기 때문에 반복 說明을 略한다.

三、戎垣必備의 皮甲

戎垣必備 甲冑條에 依하면 다른 甲冑에 對하여는 言及이 없고 다만 皮甲만이 掲載되었기 때문에 그의 解說과 原文을 抄錄한다.

가, 解說

鞆, 傘, 盔, 兜, 鎧, 介函札은 모두가 軍服의 이름이며 이를 통틀어 甲冑라 이른다. 이는 大概 護身의 器具이며 用命은 根本이므로 칼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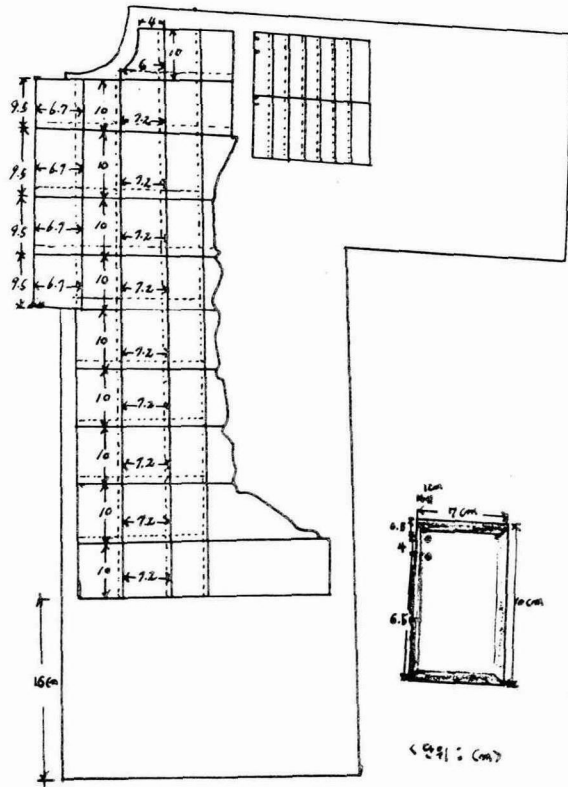


圖 14 右衽皮札排列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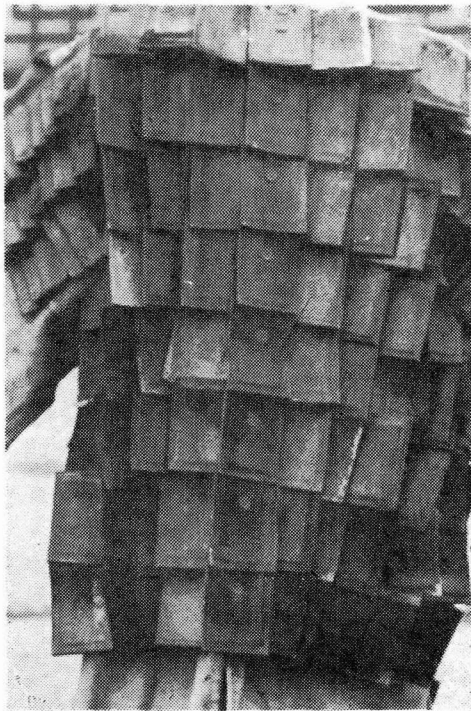


圖 15 實物皮甲(左, 前面 右, 後面)

화살에 당하여도 敗하지 않을 것이 이것들이다. 堅固하지 않는다면 막아 낼 수 없는 것이다. 三代와 秦, 漢 때는 ⑯ 많이 皮甲을 썼으니 그 絞革과 犀, 兕라고 ⑰ 하는 것이 이것이다. 갑옷에 鐵札을 쓴 것은 西漢 ⑱ 때 부터 그러 했으니 이것이 鐵甲의 始初이다. 周禮 ⑲에 函人의 職이 있고 司馬에 甲士의 制度가 있다. 晁錯가 다섯가지 같은 것으로 兵甲과 弩矢를 論하고 馬燧는 三制로써 鎧衣를 만들어 軍士를 입혔다. 모두가 鋒適을 避하여 肢體를 온전히 하는 所似이다. 그러나 갑옷을 만드는 法은 步軍의 것은 길게 하고자 하고, 馬軍은 짧게 하고자 하였으며, 弩手는 너그럽게 하고자 하고, 槍手는 좁게 하고자 한다. 그 쓰임이 같지 않고 그 制度도 各各 다르므로 兵器를 만드는 者는 그 細密한 것을 製作 始初부터 삼가 하여야 한다. 지금 갖추어야 하는바 甲冑는 各各方色 ⑳ 으로서 가죽으로 만들어 漆하고, 만드는데는 굳세고 가볍게 하여 쓰기에 便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필이면 金鱗과 繡를 裝飾하여 奢侈스럽게 美觀만을 할 뿐이겠는가.

나, 原文

鑿牟 盛覽 鎧介 函札 皆是 戎衣之名 而通謂之 甲冑 蓋護身之具 用命之本 當鋒鏑而 立於不敗之地 者此也 非堅不能禦 三代 秦漢 多用 皮甲 其曰 絞革 犀兕 者是也 甲用 鐵札 西都 已然 此鐵甲之始 周禮有 函人之職 司馬有 甲士之制 晁錯以 五同論 兵甲 弩矢 馬燧以 三制造 鎧衣 士皆所以 避鋒鏑 全肢體 然造甲之法 步軍欲其長 馬軍欲其短 弩手欲其寬 槍手欲其窄 其用不同 其制各異 故治兵者 謹其微於 制作之初 今所備 甲冑 各以 方色 革造 而漆 制得 堅輕 用得 便利 何必 金鱗 繡裝 徒侈 觀美 而已 哉

맺는 말

이제까지 前號에 이어 매우 制限된 遺物을 根據로 例示는 하였으나 未洽함을 禁치 못하겠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가죽을 主原料한 갑옷이 비록 오랜 歷史와 또한 그 壽命이 다른 갑옷에 비해 오래다 할지라도 限定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出土品이나 또한 傳存 遺物에 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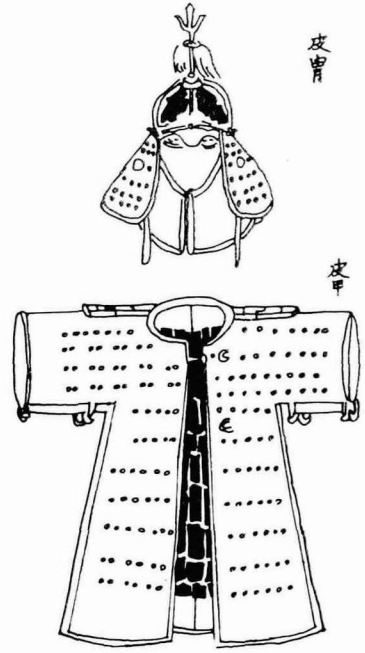


圖 16 戎垣必備에 실린 皮甲

依存할 수는 없는 情況인 것이다. 그리고 戎垣必備 原文에서도 指適하였듯이 갑옷이란 칼과 화살 그리고 鎗에서 保護를 받기 爲한 防禦裝備世宗朝에 이르러 매우 發展的인 樣相을 보이고 또한 그後도 繼續 創出한바 이로 因하여 갑옷의 製作은 매우 制約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勿論 그렇다고 甲匠以下 關係匠人을 革罷한것은 아니었으니 이는 이미 前述한 匠人 統計에서도 立證 됨과 같이 持續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漸次 防禦裝備로서는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하고 다만 儀式用으로서의 面貌만이 存續하였던 것이다. 本稿도 그동안 調査와 研究不足으로 未盡한 點이 많은 것을 自認하면서 敢히 發表함은 숨어있는 좋은 資料를 發掘하고자하는 微衷에서이며, 또한 先學諸賢의 叱責을 바라는 마음에서 임을 밝히며 拙文을 맺는다.

〈註〉

- ① 現代聖書辭典 갑옷條 삼상 17-5)
- ② 李弘植編 國史大事典 甲冑條
- ③ 周緯著 中國兵器史稿第二章銅兵條
- ④ 朝鮮太祖實錄卷六 全王三年甲戌七月初五日壬寅條

- ⑤ 寶物遺品館所藏 甲冑의 說明은 全館에서 提供한것을 參酌하였음
- ⑥ 朝鮮太宗實錄卷十二 全王六(1406)年 七月十四日 辛未條
- ⑦ 渡邊素舟著 東洋文様史 第五節 雲形條
- ⑧ 岡登貞治編 文様の 事典 靈芝條
- ⑨ 윤허 용하著 불교사전과 李熙昇編 구어대사전 寶相華條
- ⑩ 文化財管理局編 文化財大觀(國寶篇) 聖德大王神鍾(國寶第二十九號) 및 全王(寶物篇) 通度寺 銀入絲銅製香爐等에 寶相華가 施文됨
- ⑪ 前掲 註三參照
- ⑫ 王의 誕日. 正月初一日 冬至等 세명절을 말함
- ⑬ 世祖實錄卷十七 全王五(1459)年 八月二十八日 丁丑條
- ⑭ 國譯大典會通卷之六 工典 外工匠條
- ⑮ 一八一二年에 訓練大將 朴宗慶의 序文으로 刊行된 兵書로서 그 內容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가, 火器類 二十二件  
나, 鋒刃類 十八件  
다, 陣類 二件  
都合四十二件으로 모두 解說이 되어 있다.
- ⑯ 三代는 中國의 夏, 殷, 周의 三王朝를 뜻하며 秦은 BC 二四九~二〇七(三代四十年) 漢은 BC 二〇六~二四(十三代 二二一年)
- ⑰ 犀는 물소 가죽을 말하고, 兕는 코뿔소 가죽을 뜻하는 것이다.
- ⑱ 西漢은 前漢을 指稱하는 것으로 BC 二〇六~二四(十三代 二二一年)를 말함.
- ⑲ 三禮의 하나, 周公의 作이라 하나 後代의 사람이 增補한 것으로 여겨 짐. 옛날에는 周官. 唐代 以後에는 周禮라 稱했고, 周의 官制에 天, 地, 春, 夏, 秋, 冬의 六官으로 分類 說明한 것으로서 中國의 國家制度를 說明한 最古의 것이다.
- ⑳ 五方色을 말하는 것으로 東方의 青色, 西方의 白色, 南方의 赤色, 北方의 黑色, 中央의 黃色을 뜻함.

(文化財專門委員)